

이용호 의원, '신해철법' 3년간 수술 후 의료분쟁, 평균처리기간도 133일로 증가

신해철법, 의료사고로 사망·1개월 이상 의식불명·중증장애면 즉시 자동개시

이른바 '신해철법' 이후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건 중 합의나 조정에서 이른 건수는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고 평균처리기간도 매년 늘어나고 있어, 자동개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신해철법' 시행 이후 3년간 수술로 인한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자동개시 건수는 580건으로, 이 중 자동개시 후 합의나 조정결정이 이루어진 건수는 297건에 불과했으며, 자동개시 사건의 평균처리기간도 2017년 106일에서 2019년에는 133일로 한달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의료진)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개시 제도는 그만큼 의료사고 분쟁조정주도권이 신청인(환자측)에게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년~2020년 6월) 의료기관에서 수술로 인한 자동개시 전체 건수는 580건으로, 사건구분별로는 사망이 525건(90.5%)로 가장 많았고 중증장애가 33건(5.7%), 의식불명이 22건(3.8%)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17개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이 2건으로 가장 적었다. 특히 전국

을 4대 권역으로 나누었을 때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강원)에서 350건(60.3%)의 자동개시가 실시됐고, 이어 영남권(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139건(24%),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세종) 53건(9.1%),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제주) 38건(6.6%)의 자동개시가 진행됐다. 4대 의료기관 중별 가운데 자동개시 건수는 상급종합병원 282건(48.6%), 종합병원 232건(40%), 병원 62건(10.7%), 의원 4건(0.7%) 순으로 나타났다. 16개 진료과목 중 자동개시 상위 5개 진료과목은 내과(117건, 20.1%), 외과(110건, 18.9%), 정형외과(108건, 18.6%), 신경외과(106건, 18.2%), 흉부외과(87건, 15%)였다. 특히, 8개 사고원인 중에서 증상악화로 자동개시된 비율이 83.4%(484건)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그 외 출혈 5.8%(34건), 감염 5.6%(33건), 장기손상 3%(17건) 등의 순으로 자동개시가 실시됐다. 이 의원은, 의료분쟁은 쌍방 중 한쪽, 주로 의료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예 조정절차가 개시조차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에게 자동개시 제도가 그만큼 소중한 제도"라면서, "신해철법" 시행 후 3년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자동개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실력 있고 신뢰하는 큰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면 의료분쟁 자동조정개시 후 합의나 조정성립을 받지 못하는 게 큰 절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자동개시 후 종료까지 소요되는 기



간도 3년 사이 한달 가량이 더 늘어나 유가족들은 최소 몇 달 이상의 기간 동안 피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지내야만 한다"면서, "수술 후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환자 가족을 생각한다면, 자동개시로 이어지는 의료

강득구 의원, 21대 첫 국감, 첫 정책자료집 발간

"코로나19로 벌어진 교육 격차,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사상 최초의 온라인 개학과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지난 1학기 동안 원격수업을 경험한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원격수업 등에 대한 평가결과와 코로나발 교육격차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첫 정책자료집 '코로나19로 벌어진 교육격차,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발간했다. 강득구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발간한 정책자료집은 코로나19와 관련된 두 건의 현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 이후 심화되고 있는 교육격차와 기초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책자료집이 주목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지난 1학기 동안 원격수업을 직접 경험한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원격수업의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현장의 생생한 여론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현안 설문조사

는 강득구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교사, 학부모, 중·고등학생 등 총 7,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9월 8일부터 15일까지 학부모, 교사, 학생 등 총 1,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발 교육격차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 등이다. 위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와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한 현장의 문제점, 관련 선형 연구 등을 바탕으로 자료집에서는 5가지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치원·초등학교 책임제, 기초학력점교사제, 교육과 케어를 하는 돌봄,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정서적 지원, 재능 교육과정 보급 등이다. 강득구 의원은 "전례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지난 1학기 등교 중단과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수업 공백의 발생, 기초학력의 부실화, 교육격차 심화 등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교육격차의 실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교육격차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임종식 경북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연속 전국 2위 "국회 세종 이전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야"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9월 실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의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전국 2위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임종식 교육감의 직무수행 지지도는 45.8%로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2위를 기록했다. 부정평가 지수는 28.8%로 낮은 순으로 전국 2위를 차지했다. 또한 지금까지 지지도 확대 지수 1위, 부정평가 지수 2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지속적 상승 요인은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초·1~2학년 성장책임학년제 추진, 포항해양과학고 스마트 해양 수산 분야 마이스터고 추진,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종합 우승, 예천 감천초 교육부 학교 공간혁신사업 우수학교 선정, 태풍 피해 가구 학비 지원, 아동특별돌봄·비대면학습 지원금 지급 등 학습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강화로 꼽힌다. 임종식 교육감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현장을 실현하고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병행으로 나타나는 교육격차 해소에 모든 힘을 집중하겠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경북교육을 위한 미래교육 역량도 충실히 키워겠다"고 말했다. 리얼미터 9월 정례조사는 지난 9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7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만 7,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전국 95%, 신뢰수준 ±0.8%p, 응답률은 4.7%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9월 실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의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전국 2위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임종식 교육감의 직무수행 지지도는 45.8%로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2위를 기록했다. 부정평가 지수는 28.8%로 낮은 순으로 전국 2위를 차지했다. 또한 지금까지 지지도 확대 지수 1위, 부정평가 지수 2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지속적 상승 요인은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초·1~2학년 성장책임학년제 추진, 포항해양과학고 스마트 해양 수산 분야 마이스터고 추진,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종합 우승, 예천 감천초 교육부 학교공간혁신사업 우



이원형/기자

6일 상심문화관서 민주당 참정은지방정부위원회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참정은지방정부위원회가 6일 세종 상심문화관에서 첫 간담회를 열고 세종시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만들 수 있도록 세종의사당 건설을 넘어 국회 이전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참정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방자치를 위해 설치한 민주당 내 상설기구로 홍영표 참정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과 지방정부 4대 협의회장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정부 4대 협의체 회장은 송하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한중 전국시도의회장 협의회장, 황명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장이다. 이 자리에서 송하진 회장은 "이준희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조상호 세종시 경제부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장철민 국회의장 등 1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 조기 임박화 방안과 자치분권, 국도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시도 하반기 예산정책협의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영표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세종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도시"며 "조속한 국회 이전을 통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위원장은



최재은/기자

김명원 위원장,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 및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지난 6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3층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진택 부위원장,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 및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관계자들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내 버스업계 재정악화에 따른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도내 버스업계의 경영불안 심화, 승객 감소 등에 의해 발생하는 운수종사자들의 생계

난 등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금일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 및 대안이 제시되어 버스 운수종사자들에게 다소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정담회를 시작했다.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정재호 전무회장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발생으로 심각한 수입감소를 초래했으며 최근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단계에 따라 수입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며 경영불안의 심각함을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노선버스가 1,370만 도민의 생활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한 모든 재정지원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교통복지지원의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동일 교통권역의 서울시·인천시와 같이 준공영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이기천 위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회사의 재정 위기 속에서 그나마 이 정도도 운영이 가능했던 것은 지금

까지 버스운수종사자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 김기성 이사장 또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최소한으로 근로자를 배려할 수 있도록, 버스업계에 대한 지원금이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에 오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입 감소로 운수종사자들은 근로일수 단축 등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

위원장으로써 도민들의 발이 되어 주는 버스 운수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금일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며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운수종사자들의 피해가 너무 큰 것 같아 안타깝다"며 "조속히 이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금일 나온 의견들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전달하고 재정지원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박상찬/기자

# 김은혜, "LH임직원 수상한 출장, 출장비 새로 수수방관"

### 송의원, "허위 출장비 잔치 벌이는 공공기관에 대해 강력한 처벌 필요"

공공기관 혁신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공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출장비 부정부패가 사실로 드러나 관계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14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LH임직원의 본사 허위출장으로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사례가 총 2,1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LH 본사 출장만을 전수조사한 것으로 실제 부정수급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LH임직원이 신청한 본사 출장 3,171건 가운데 2,167건이 해당 출장신청자의 진주 본사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LH 본사 출입을 위한 스피드게이트 6곳과 임시출입증 발급기록을 출장신청 내역과 대조한 것으로 결국 본사 출장신청자 10명 중 7명은 청

사에 출입조차 하지 않는 셈이다.

[첨부파일 참조] 이에 LH는 본사 상주직원 인솔이나 지하주차장 등을 통한 출입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을 하지만, 김 의원은 이 역시 LH가 평소 보안관리를 도외시하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가 만연한 이때 그런 관리 행태가 나타난다면 국민에 책임을 다해야 할 공공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출장 비위와 관련한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 LH 측에 최근 5년간의 자료를 요구하였지만, LH는 출입통제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서버 교체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LH는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과 마찬가지로 자체 취업규칙에 출장자 귀인 후 3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LH임직원의 총 출장건수와 출장비 지급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5만4,551건, 2017년 5만9,109건, 2018년 6만9,966건, 2019년 6만6,51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총 출장비 지급액 또한 2016년 82억8,330만원에서 2019년 101억3,163으로 늘었다. 반면, LH감사실이 최근 5년간 출장비 부정수급 건으로 징계조치를 내린 경우는 14건에 불과했다. LH '여비규정'에는 출장비 등에 대한 환수 및 징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최광수/기자

# 상습 하자 시공사에 수천억대 일감 몰아준 LH

### LH 품질미흡통지 5회 받은 업체, 연간 수천억대 LH 아파트 건설 수수...별점제 유명무실

LH가 '품질미흡' 판정을 내린 일부 아파트의 시공사들이 하자보수를 계속 등한시해도 이들에게 연간 최대 수천억대의 공사를 맡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자 보수 미흡 등으로 연거푸 경고장을 받더라도 처벌이 솥방망이 수준인데다, 하자발생 자체에 대한 별도의 제재가 없어 부실시공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공사수행능력, 임찰금액, 사회적 책임 가정 및 계약 신뢰도 감정을 평가·적용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LH '여비규정'에는 출장비 등에 대한 환수 및 징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LH 아파트를 시공한 98개 건설사가 총 137건의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 중 2회 이상을 받은 업체가 24개사에 달했다. 3회 이상이 11개사, 심지어 5회를 받은 업체들도 있었다. 하지만, 통지서를 받더라도 LH의 관계는 굳건했다. 이 기간 통지서를 5회나 받은 남양건설(㈜)과 3회를 받은 에스티엑스 건설(㈜·태평양개발(주))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남양건설은 2015년 7월 최초로 통지서를 받은 직후, 불과 5개월여 뒤 통지서를 한 번 더 받았는데도, 그해에만 LH로부터 아파트 건설 공사 4건을 따냈다. 총 수수금액이 1,833억6,700만원에 달한다. 이후 4년간 통지서를 세 차례 더 받았지만, 총 2,963억6,800만원 규모의 아파트 건설공사 7건을 추가로 따내며 승승장구했다. 에스티엑스건설(주)과 태평양개발(주)은 통지서를 3회 연속으로 받은 뒤 연이어 공사를 수주한 케이스. 각각 4건과 2건의 계약을 통해 1,938억5,300만원과 724억6,600만원을 수주했다. 심지어는 통지서를 받은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끝까지 거부한 탓에, LH가 직접 보수한 사례도 최근 4년간 6건이 확인

됐다. 이에 대해 허영 의원은 "LH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들은 하자가 많더라도, 하자를 방지해서 경고를 받더라도, LH 계약을 따내는데 사실상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황"이라며 "심지어 하자 보수비용까지 대납해 주면서 '저품질의 불편한 아파트'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하자의 발생 빈도와 부실관리 정도에 따라 '입찰 제한'과 같은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며 "입주민이 LH 원도급사의 시공 만족도를 직접 평가해 심사에 반영하는 등 주거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순희/기자



# 이철우 도지사, 전국기능경기대회 종합우승으로 기술경복 입증

###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종합우승 유공자에 축하와 격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0월 8일 경북도청에서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경북이 종합우승을 차지하는데 크게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했다. 이 도지사는 자리를 함께한 김태정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장, 지상근 경상북도기능경기위원회 기술위원장, 이준우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교장, 윤서준 학생 등 유공자들에게 종합우승을 축하하고 그간의 노력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경상북도는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종합우승을 거두었으며 이는 기능경기대회 출전 사상 두 번째로 2018년도 중

합우승이 우연이 아닌 실력임을 증명했다. 특히 올해는 경북지역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방대회를 세 차례 연기하면서 개최되는 등 전국대회 준비에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종합우승을 거둬 더욱 의미가 깊다. 올해 전국대회는 전라북도에서 진행됐으며 50개 직종에 1778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경북도는 47개 직종에 139명이 참가해 금9, 은13, 동10 등을 수상해 종합우승을 거머쥔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종합우승은 기술경복을 입증하는 성과이며 경상북도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청신호"며 "여러분의 노력으로 경상북도의 산업발전을 견인해 일자리가 넘치는 부자경북의 초석이 되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형/기자



# 장현국 의장, 킨텍스 방문해 마이스 산업 지원방안 논의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코로나19로 극심한 타격을 입은 마이스 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고양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사업현장'을 방문하는 등 '제5차 찾아가는 현장도의회'를 실시했다.

'킨텍스 제3전시장'은 경기도의회가 '정책공약'으로 추진 중인 주요 SOC사업으로 국내 최대 '글로벌 마이스 산업 허브' 조성을 목표로 내년 중 착공에 들어가 2024년 개장할 예정이다. 이날 '찾아가는 현장도의회'에는 문경희 부의장을 비롯해 지역구 의원인 김달수·고은정·남윤선 의원과 최문환 의회사무처장 등이 동행했다. 장현국 의장과 의원들은 먼저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와 함께 기존 전시장과 제3전시장 건립 예정지를 둘러보며 마이스 산업의 위기를 타파하고 전시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3전시장의 건립을 원활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내 마이스 산업의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 킨텍스는 최근 전국 전시컨벤션센터 중 최초로 '상설 온라인 화상 상담장'을 설치하는 등 비대면 행사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는 "정부의 집합금지명령 이후 전시·컨벤션 등의

행사가 대부분 축소·연기되는 상황에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킨텍스는 집합금지명령 기간 모든 위약금을 면제하고 비대면 행사에 대해서도 구상하는 등 공생경영을 통해 코로나19의 위기상황을 잘 이겨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현국 의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마이스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선 장기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킨텍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킨텍스 제3전시장을 차질 없이 건립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많은 관심을 갖고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장현국 의장 등은 이날 제5차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에서 수렴한 건의사항을 경기도청 담당부서에 전달하고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의원들의 선거공약을 정책화해 집행부에 제시하고 사업예산을 반영하는 형태의 '정책공약'을 실시 중으로 개원 직후 '킨텍스 제3전시장 추진'을 김달수·고은정 의원의 정책공약으로 마련하는 등 전시 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은 지난 1월 기획재정부에서 진행한 예비타당성을 통과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건립단을 구성하는 등 공사를 앞두고 있다.

박상찬/기자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님의 KINTEX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일자 | 2020년 10월 8일(목) 장소 | KINTEX 제3전시장 회의실

www.wawa105sujin.com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발행·편집인: 최수진 / 회장 임영석 / 부회장 박상찬 / 사장 박부석 / 편집국장: 최재은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트빌 701호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naver.com

2009년 4월 12일 창간    경 차 부: 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경기.가50079    사 회 부: 내선 (113)    부 동 산 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 계 부: 내선 (114)    오 퍼 니 언 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 부: 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편집국: (02)2612-2959    구독신청·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팩 스: (02)2060-4147

맛 좋은 빛깔 좋은 영양 풍부  
 영양충족으로 만든 빛깔 찬산 고춧가루

검색 사이트에서 만나요

**청정영양 원인**

**H.O.T 페스티벌 2020**

매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영양 핫 페스티벌'이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당해는 온라인 축제로 진행합니다

판매기간 9월 14일 ~ 10월 14일  
 판매처 사이트 www.cyso.co.kr  
 문의전화 054-683-7300



# 경북농업기술원, 박과작물 황화바이러스 발생증가. 주의 당부

## 박과작물 바이러스 피해증상, 방제요령 안내책자 제작해 시·군에 배부

경북농업기술원에서는 박과작물 바이러스 피해증상 및 방제법 안내책자를 배부하고 박과작물의 잎이 황화되면서 과실 생육이 불량할 경우 조속히 진단 의뢰해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농업기술원은 올해 박과작물에 경제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발생을 확인하고 이 증상이 재배 시 생리장애로 오인돼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예방관리를 위해 바이러스 피해증상과 방제요령에 대한 안내책자를 제작해 시·군에 배부했다.

또한 작물 생육 초기부터 바이러스 병을 옮기는 매개충에 대한 방제를 철저히 할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농업기술원 작물보호연구팀에서는 농촌진흥청과 '국가관리바이러스 정밀분포 조사'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중 오이, 멜론 등 박과작물에서 박과백화황화바이러스와 박과진딧물매개바이러스의 발생을 확인했다.

박과백화황화바이러스는 2004년 일본 멜론농가에서 최초 발생했고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발생된 적이 없었으며 박과진딧물매개바이러스

는 2013년 경북과 전북 지역에서 발생된 이후 점차 확산되는 추세이다.

박과백화황화바이러스는 담배가루이에 의해 전염되며 박과진딧물매개바이러스는 진딧물에 의해 전염되는데, 바이러스 피해증상은 유사해 잎 황화, 작과불량과 열매비대 불량, 멜론 네트형성 불량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특히 오이는 약 40 ~ 50%의 수량 감소를 일으킨다. 박과채소의 육묘기간이나 정식 초기에 감염되면 과실 수확이 어렵기 때문에 하우스 입구와 측면에 담배가루이나 진딧물이 통과할 수 없는 촘촘한 방충망을 설치해 매개충의 유입을 막고 초기부터 등록 약제를 살포해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권태룡 경북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은 "박과채소에 발생하는 바이러스 증상과 예방관리에 대한 책자를 제작해 도내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인 등에 배포했다"며 "박과작물에서 의심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업기술원에 진단을 의뢰해 조기에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이원형기자



# 목포시, 유달산 일등바위 일원 '명승'지정 추진



## 국가 '명승'지정으로 도시 브랜드 높이고 체계적으로 보존하고자 추진

목포시가 유달산 일등바위 일원을 국가 '명승'으로 지정하기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유달산은 서남해안의 바다와 섬, 목포 도심의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봄에는 개나리와 벚꽃이 피어 꽃 축제가 열리는 등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목포의 명산이다. 또한,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일괄 및 달성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목포시사, 목포 오포대 등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 유산을 살펴볼 수 있다. 시는 유달산을 명승

으로 지정해 동식물을 보호하고 향후 보수·관리 등에 국가자원을 받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자 이번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유달산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용역에서는 역사와 민속 등 인문환경 및 식생, 경관 등 자연환경, 유달산의 명승 지정에 대한 가치 및 타당성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유달산 명승 지정을 통해 목포의 랜드마크인 유달산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더불어 풍부한 문화유산과 뛰어난 풍광을 관리·보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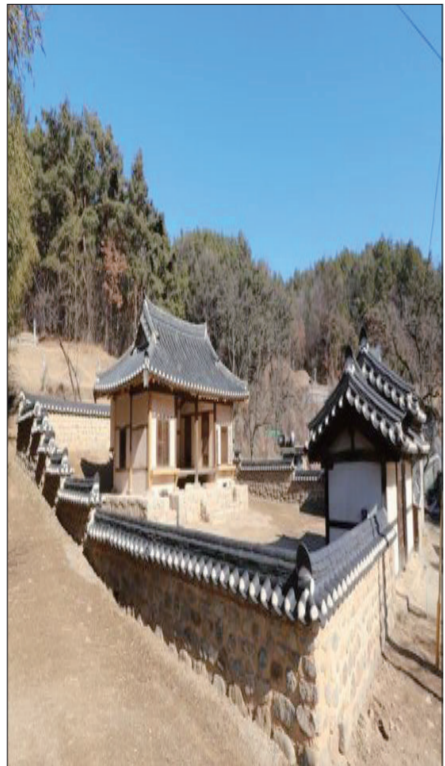
김동일기자

# 문중 교육사업의 산실, 매곡 '봉유재'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지정

충북 영동군 매곡면 노천리 '봉유재'가 10월 8일자로 충청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고시됐다. 이 봉유재는 문중 자체적으로 인재를 양성하던 문중학교이다. 조선 중종때 안주목사를 지낸 박성량을 기리기 위해 후손들이 1632년 건립했으며 이후 두 차례에 걸친 고쳐지은 뒤 2019년에 완전 해체·보수했다. 흥학당 인접한 곳에 건립되어 소종재라 불리다가 봉유재라는 현판을 달고 건설, 서당으로 사용한 유서 깊은 건물이다.

군 관계자는 "매곡면 노천리 일원은 지역 중흥이 정착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유적이 밀집된 곳으로서 중종 자체 교육기관이 최근까지 그 기능을 수행하던 곳"이라며 "봉유재 지정을 계기로 매곡면 일원 문화재를 활용한 교육, 체험 사업이 활성화되며 문화 거점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최만식기자



# 괴산군의회 안미선 의원, '제14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최고 위원장상' 수상

충북 괴산군의회 안미선 의원이 지난 6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열린 제14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위원장상을 수상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지난 2007년부터 전국 기초 및 광역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의정역량강화 노력과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심사해 시상하고 있다. 이중 최고 위원장상은 혁신적인 위원회 활동으로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회 선진화에 기여한 위원장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안미선 의원은 제8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운영행정위원장을 수행하며 '괴산군 현혈장려에 관한 조례안' 발의 등 군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노력

해왔으며 후반기에도 산업개발위원장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안미선 의원은 "이 상은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시는 괴산군민과 함께 받는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역주민을 위한 소통과 공감정착에 힘쓰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도 괴산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만식기자



# 부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비대면으로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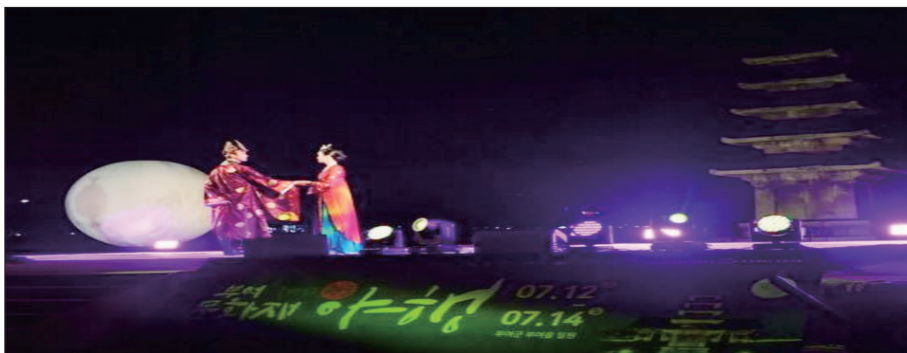
## 2020 부여문화재야행, 모두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대체

부여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 부여 문화재야행을 모두 현장 공연이 아닌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개최한다. 군에 따르면, 올해 펼쳐지는 부여 문화재야행은 10월 23일 오후 6시부터 10월 24일 밤 11시까지 부여 문화재야행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정립사지 주무대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공연들을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2020 부여 문화재야행은 미스터티트 출신 김경민의 축하공연, 부여출신 뮤지컬 배우 임정모와 국악소녀 김나현의 축하무대, 무형유산 한마당, 백제미마지 탈춤, 지역 예술인 공연 등이 온라인을 통해 관객과 소통할 계획이다. 군은 특히 올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여러 인과가 모여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대체해 온라인 체

험 프로그램으로 대거 구성했다.

우선 '부여에서 신동엽 시인을 만나다'는 김응교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사전 홈페이지로 신청 받은 참가자들과 함께 강연을 하고 질의응답도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모저모 즐겨보는 집콕 KIT'는 팔찌, LED 머리핀 등 체험물품을 만드는 영상을 찍어 신청자에게 물품을 배송한 후 영상을 올려 체험하게 하는 행사이며 유튜브를 통해 부여 10미 레시피를 소개하는 '부여 10미 야시장', 사전 신청자가 접속해 부여 세계유산 문제를 풀어보는 퀴즈대회인 '올려라 부여의 중' 등 비대면으로 즐기는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정립사지 현장에서 직접 문화재야행을 즐길 수 없게 됐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 문화행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 양주시, 제14회 양주예술제 온라인 개최

양주시는 오는 10월 15일과 16일 이틀간 양주 별산대 놀이마당에서 '제14회 양주예술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주예술제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양주지회에서 주최하고 양주예총 산하 8개 단체 주관, 양주시 등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 실시간으로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위로 for Yangju'를 주제로 열리는 예술제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몸과 마음이 치진 시민들을 위로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역 예술인들이 대거 참여해 시민을 위한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 체험 등을 선보인다. 첫날인 15일에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연극협회의 '안

중근, 애국을 노래하다', 가 울려진다. 16일에는 음악협회의 '위로와 희망의 콘서트'에 이어 국악협회의 '흥겨운 국악한마당'과 함께 양주연예인협회 주관 '양주시민가요제' 등 관람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흥겨운 무대가 펼쳐진다. 한편 코로나19 영향으로 매년 진행되던 체험행사, 부대행사 등을 방역차원에서 실시하지 않는다.

김영환 양주예총 지회장은 "이번 예술제는 코로나19 사태로 공연자와 관객들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전환해 진행한다"며 "유튜브 검색창에 '양주예술제', '양주예총'을 검색하면 실시간으로 관람할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권기자

# 정조의 꿈을 품은 성곽, 수원화성을 읽다.

## 김천시립도서관, 제2차 '길 위의 인문학' 운영

김천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길 위의 인문학' 공모 사업 선정으로 1차에 이어 2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프로그램은 '정조의 꿈을 품은 성곽, 수원화성을 읽다'라는 주제로 한신대학교 김준혁 교수를 모시고 10월 16일 23일 30일 3회에 걸쳐 정조의 훈이 깃든 수원화성에 대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조에 관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꼽히는 김준혁 한신대 평화교양

대학 교수의 강연을 통해 화성 축성으로 개혁 군주의 꿈을 이루려 했던 정조와, 정약용이 자신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설계한 수원화성에 관한 숨겨진 뒷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 19로 인해 참여인원 축소와 온라인 강좌로 진행될 예정이며 추후 상황이 안정되면 오프라인 강연으로 전환 및 탐방 운영도 계획 중이다.

김영욱 시립도서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키며 차질 없이 프로그램을 준비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양현식기자



# '가을철 성육기 불법어업' 합동 지도·단속 실시

### 생계형 어업인·비어업인 등은 홍보 및 계도 실시

경상남도가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10월 한 달 간 불법어업 관계 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을 비롯한 연안 7개 시군 및 수협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무허가·무등록 불법조업 허가 외 어구 사용·적재 어린 고기 포획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생계형 어업인과 비어업인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한다. 또한 육상 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항포구, 위판장, 재래시장' 등을 중심으로 정박 중인 어선의 불법 어구 적재, 불법 포획된 어획물의 유통·판매 등 불법 어획물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단속을 육·해상 동시에 실시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수산자원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유어·관광객들



오영광/기자

도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규정을 위반해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할 때에는 단속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인석 도 어업진흥과장은 "가을철은 봄에 산란한 어패류가 크게 성장하는 계절인 만큼 불법행위에 대한 수산 자원관리가 필요하다"며 수산자원 보호와 자율적인

준법 조업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가을철 어선의 조업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크고 작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니 출항 전 점검 등을 통해 운항 중 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남도 특사경, 하천 무단점용 불법 계류장 철퇴

### 하천구역 내 무단점용 및 원상복구 명령 미이행 불법 계류장 4개소 적발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8월 6일부터 10월 5일까지 실시했던 '하천구역 무단 점용 계류장에 대한 기획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무단점용 계류장 1개소와 원상복구 명령 미이행 계류장 3개소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낙동강변에서 수상스키 등을 이용하기 위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계류장으로 인근 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 속에, 하천 오염행위를 차단하고 유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국가 하천내 수상스키 등의 이용목적으로 무단 설치한 불법 계류장 1개소와 관계 기관으로부터 하천 무단점용으로 고발과 원상복구 명령을 4차례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상스키 등을 이용하기 위해 설치한 불법 계류장 3개소이다. 특히 하천 무단점용으로 적발된 계류장 1개소는 하천내 섬에 설치해 관할 기관의 접근이 어려워 단속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에 도 특사경은 인근 주민을 상대로 끈질긴 탐문과 주변 항공사진 분석 등 입체적 정보 수집을 통해 퇴



송인용/기자

로를 사전 확보한 후 잠복근무 중에 행위자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에 따른 처벌 기준은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을 무단 점용하거나 하천관리청의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처럼 위반행위 대한 처벌이 가뻐지 않음에도 하천 무단점용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도 특사경 관계자는 '단속 사각지대에서 은폐해 계류장을 설치하는 경우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꼽았으며 '여름철에

만 이용할 수 있는 수상스키의 특수성'으로 자신들의 동호회 활동과 하천 영업 이익만을 위해 벌금을 감수하면서까지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대호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하천구역 내 무단으로 설치한 계류장으로 인해 하천오염과 인근 주민의 불편이 우려된다"며 "하천사용 이익 증진 및 자연친화적 보전과 지역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기획단속과 감시로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주시, 생태계 교란식물 '가시박' 일제 제거

### '가시박 일제 제거의 날' 운영...내년 상시 제거전담반 운영

공주시가 지난 6일 금강변과 지류 하천인 왕촌천 일대에서 '가시박 일제 제거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가을철 열매가 떨어지기 전 선제적으로 가시박 줄기를 제거해 집중 번식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공주시 온누리봉사단과 공주야생동식물관리협회 등 8개 환경관련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총연장 2.8km 구간을 3개 구간으로 나눠 돌며 수작업을 통해 가시박 줄기를 제거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가시박은 일년생 덩굴식물로 번식력이 매우 강하고 다른 식물의 생육을 저해해 고사에 이르게 하는 유해식물로 지난 2009년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계 교란식물 15종 중 하나이다. 박인규 환경보호과장은 "가시박은 주로 하천을 따라 번식하고 있



고정화/기자

으며 공주지역도 금강변류 및 지류 하천을 따라 집중 번식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가시박 상시 제거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가시박 근절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 차량 불법 개조 "꼼짝마"

### 다목적 목검문 합동단속 실시 결과 83대 중 불법 개조 등 14대 적발

충청시정부가 이륜차 및 자동차 불법 개조 근절을 위해 나섰다.

시정부는 최근 충청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동면 느릿재에서 이륜차 소음 등 다목적 목검문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총 점검 차량 83대 중 소음기 불법 개조 13대, 미등록 및 번호 판가림 1대가 적발됐다.

단속된 차량은 현재 경찰 수사과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매년 과다 발생 차량 110대에 점검도 함께 실시했지만, 위반 차량은 없었다. 이처럼 느릿재 등에서 소음기를 불법 개조하는 이륜차 및 차량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정부 등은 2주 1회 이상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정부 관계자는 "소음기 및 차량을 불법개조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만큼 절대 해서는 안된다"며 "앞으로도 경찰 등과 함께 합동 단속을 추진해 불법 개조 행위 근절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근/기자

# 홍성군, 축산물 위생분야 합동단속 실시

홍성군은 축산물 위생 및 원산지 표시,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근절을 위해 축산물 위생분야 합동단속에 나섰다. 충남도 및 타 시·군 특사경팀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며 단속대상은 학교급식 납품업체,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관내 축산물 취급업소 232개소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여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위·변조 여부 축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여부 수입산 쇠고기, 국내산 육우가 국내산 한우로의 둔갑행위 식육 매입, 매출에 관한 서류 작성 여부이며 학교급식 납품업체 및 쇠고기 취급업소에 대한 한우 유전자 검사도 동시 진행



고정화/기자

한다. 홍성군 관계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 질서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복**      **대파**      **울금**

**농수산물**은 **진도** 것이 최고지라~

진도아리랑몰    검색    진도아리랑    청정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 광명시 '민생·경제·일자리 종합대책본부' 지역경제 살리기 올인

## '광명시 민생·경제·일자리 대책' 효과 만점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상황에 광명시가 '민생·경제·일자리 종합대책본부'를 구성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경제를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광명시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지난 3월 18일 박승원 광명시장을 단장으로 민생안정, 경제활력, 협력지원 3개 분야 32개 부서가 참여해 '민생·경제 종합대책 T/F팀'을 구성했으며 이어 5월 18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장기대책을 마련하고자

일자리 분야를 추가해 '민생·경제·일자리 종합대책본부'로 확대 개편했다.

대책본부는 매일 수시로 회의를 갖고 지역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서민 경제 위기 극복에 힘써 왔다.

시는 지방재정신속집행 맞춤형복지포인트 상반기 집행 청년기본소득 조기지급 코로나19 조기극복 소상공인 지원 재난취약 위기가정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위생업소 소독서비스 등 지원 소상공인 한시적 도시가스 감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감면 @코로나19 극복·희망일자리 사업'등 중점과제 11건과 일반과제 39건, 총 50건의 과제를 마련했다. 총 50개 사업 중 29개 사업은 완료했으며 21개 사업은 정상추진 중으로 광명시는 지역경제 살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경기도·광명시 재난기본소득 15만원, 소상공인 50만원 등 선제 지원

광명시는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광명시민 1인당 15만원씩 광명시·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으며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연매출 10억 이하 소상공인

을 대상으로 1차 긴급 민생안정자금 50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2차로 인·허가부서 지원 업종 선별 소상공인에 30만원씩 지급했으며 1, 2차 지원을 받지 못한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만원씩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광명 희망일자리' 1663개 일자리를 마련, 화상 면접실과 AI 면접 체험관을 상설 운영 취업 지원광명시는 코로나19로 실직하거나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시민을 위해 '광명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7개 분야 240개 사업을 마련해 1,663명의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또 신중년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광명형 청년인턴제 등 다양한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해 시민의 생계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화상면접 만남의 장과,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해 일자리를 연계하고 화상 면접실과 AI 면접 체험관을 상설 운영해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일자리가 불안한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조성한다.

총 6억원 예산으로 철산상업지구 내 프라자빌딩 100여 평 공간에 교육장, 회의실, 휴게실, 대기실 등을 오는 12월까지 설치할 예정이며 쉼터 조성 후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률, 노무, 금융, 취업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명사랑화폐 532억원 발행, 전통시장 배달 서비스로 전통시장 살리기광명시는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명사랑화폐 발행액을



당초 87억보다 445억원 많은 532억원으로 확대하고 10% 인센티브 제공기간을 12월까지 연장했다.

지난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앱 '놀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건수가 7700여건에 달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몫을 하고 있다.

또 광명시청 직원 식당을 이용하는 직원과 시민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매주 금요일 식당을 운영하지 않았으며 '공무원 전통시장 이용의 날'을 지정해 침체된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생안정·경제 활성화 지원, 저소득층 76억여원 지원 및 각종 요금 및 세금 감면광명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에 34억6,700만원을 지원했으며 저소득층 시민에게 42억원의 광명사랑화폐를 지원했다.또 지역아동센터에 48억 7,600만원, 어린이집 방역물품 7,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청년 기본소득 18억원 조기 지급,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2억3,000만원 조기지급,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740개소에 긴급방역소독 및 안심업소

방역소독 및 1,100만원 방역물품 등을 지원했다.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7억 1,000만원 감면, 하수도 사용자 4억 6,600만원 감면, 도시가스 3개월 16억 5,600만원 감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16억 5,700만원 감면, 도로점용료 2억400만원을 감면했다.이외에도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 올해 재산세 50%를 감면해 주고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에 대해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민생·경제·일자리분야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민생·경제·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끝까지 꼼꼼하고 확실하게 추진해 취약계층, 소상공인, 중소기업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전순희·최정부/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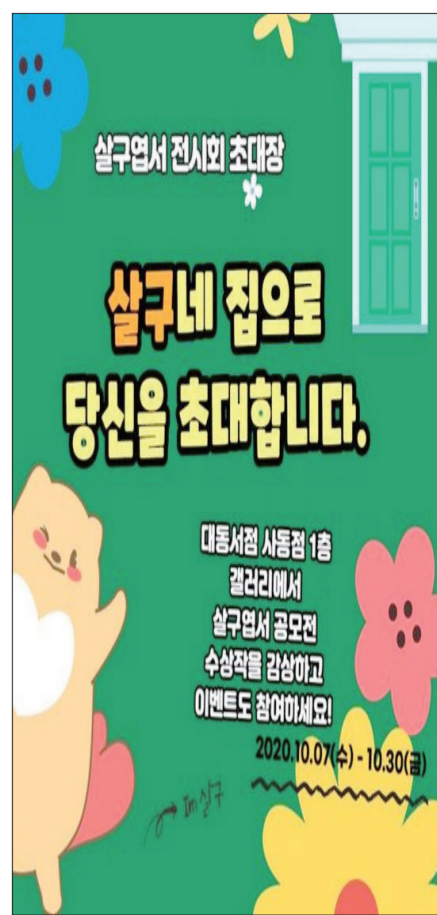
# 생명을 살리고 구하는 '살구엽서 전시회' 개최

안산시자살예방센터는 대동서적사동본점에서 '생명을 살리고 구하는 '살구' 엽서 전시회'를 이달 30일까지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5~7월 개최한 엽서디자인 공모전 출품작으로 대상을 수상한 서울예술대학교 이소정 학생의 작품 '일 틈 없이 달려온 당신에게'를 비롯해 총 15점의 수상작 60점이 전시된다.생명은 소중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나의 가족과 이웃에게 관심을 갖자는 메시지를 담은 자살예방 관련 주제의 작품들로 참신하고 독창적인 엽서 디자인을 감상할 수 있다.이밖에도 관람객을 위해 준비된 포토존과 함께 전시작이 담긴 엽서북 증정, 관람후기 기프티콘 증정 이벤트 등도 진행된다.

이중하 센터장은 "살구엽서 전시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자살예방은 어렵고 무거운 주제라 아니며 우리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정부/기자



# 이천시, 홍보 전용 영상차량으로 이천특산물 홍보 나선다

8일과 15일 이천쌀·인삼·도자기 홍보.명품 이천쌀과 이천도자기 경품행사도 병행

이천시가 이천 쌀축제와 인삼축제, 도자기축제 취소의 아쉬움을 달래고 이천지역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나섰다.이천시는 오는 10월 8일 15일 양일간 홍보 전용 영상차량을 활용한 이천 시내 일원, 장호원 및 부발 등에서 이천 쌀·인삼·도자기 홍보활동을 전개한다.홍보 전용 영상차량은 중리사거리 일원, 장호원 파출소 주차장, 부발 역사 광장을 돌며 이천 주요 농·특산물 홍보를 진행한다.이천시는 특히 COVID-19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 블루로 위축된 시민들에게 이천 쌀·도자기 관련 경품행사를 진행해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경품행사는 각 시간대별로 정차하는 장소를 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중리사거리 일원은 오전 10시, 장호원 파출소 주차장은 오후 1시 30분, 부발 역사 광장은 오후 4시에 정차해 행사가 진행된다.행사 마감 시간은 남은 경품 수량에 따라 장소별로 상이하나, 시민들은 각 장소별 행사 시작 시간을 유념해 경품행사에 참여하면 된다.행사 진행 시간에는 홍보 전용 영상차량 옆에 이동식 포토존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경품 행사 참여는 이동식 포토존에서 촬영한 본인 사진을 개인 SNS에 업로드하거나 5명 이상 지인에게 공유 후 현장직원에게 인증

박상찬/기자



# 파주시, 꿈드림 청소년 자연학습으로 꿈 활짝

파주시는 지난 6일 장단면 거곡리 6번지에 위치한 지역농업개발 시험연구포장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드림 청소년과 함께 열무, 열갈이배추를 수확했다.스마트농업기술로 재배한 열무와 열갈이배추 수확체험은 일상과 스트레스에 지쳐있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드림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자연학습을 통해서 미래설계 및 자아형성에 도움을 주기위해 진행됐다.이번에 수확한 열무, 열갈이배추는 '파주시 청소년상담센터'에 기증하며 다가오는 11월에도 지역농업개발 시험연구포장에서 무농약 배추와 무 수확 체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수

확에 함께 참여한 장문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은 "자연을 접하며 진행된 농작물 수확체험은 꿈드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증받은 열갈이배추와 열무를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윤순근 파주시 스마트농업과장은 "지역농업개발 시험연구포장을 통해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종자를 공급하고 지역특화 새소득 작목개발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적응시험 농작물은 수확체험을 통한 복지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근/기자



감동양주  
신성장·새 지평

# 함께하는 감동 양주

# NEW & NEW

## 새로운 도약, 신성장 활력도시



#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사전접수 6주 만에 목표 대비 20% 초과 달성

### 시범지역 가맹점 사전 모집 3,699건 접수, 목표치 123% 달성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화성·오산·파주 등 시범사업 지역 3 곳을 대상으로 가맹점 사전접수를 한 결과, 당초 목표인 3,000건보다 약 20% 많은 총 3,699건이 6주 만에 접수됐다.

6일 경기도주식회사에 따르면, 지난 8월 19일 시작해 9월 30일 마감한 사전접수 기간 동안 화성시 1,821건, 오산시 830건, 파주시 1,048건 등 총 3,699건의 신청이 들어왔다.

이번 성과는 공공배달앱 필요성에 대한 소상공인의 공감과 의지가 반영된 것은 물론, 시범지역 내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지부, 맘카페 등이 홍보에 적극 협조한 것 역시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배달특급'은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8월 27일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가 수도권 외식배달 음식점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배달앱 거래 관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달앱 가맹점 10곳 중 8곳은 배달앱에 지불하는 광고비와 수수료 가 과도하게 높다고 응답했다.

'배달특급'은 민간 배달앱 대비 낮은 수수료율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소비자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의 편익을 공략하는 '상생 플랫폼'으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경기도와 각 지자체, 지역 커뮤니티와 소상공인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배달앱 성공의 기초인 가맹점 확보에서 큰 성과를 거둬 감사하다"며 "앞으로 차별화된 서비스와 혜택

을 마련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배달특급'이 되겠다"고 말했다.

여은남 한국외식업중앙회 오산시지부장은 "외식업 업주들에게 수수료 절감이 매우 필요한 부분이었다"며 "최선을 다해 공공배달앱이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파주에서 외식업에 종사하는 한 가맹점주는 "소상공인을 위해 수수료를 낮춘 '배달특급' 소식을 접하자마자 주변 상인들에게도 소개했다"며 "많은 인기를 얻은 만큼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사전 가맹점수에 신청한 3,699개의 가맹점이 '배달특급'에 우선 입점할 수 있도록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전신청 마감 이후에도 가맹점 모집은 상시 진행되며 순차적으로 '배달특급'에 입점하게 된다. '배달특급'의 가맹점 신청을 원하는 업체의 경우,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의 팝업창 또는 '알림소식' 메뉴의 '알림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달 28일 경기도 공공배달앱에 대한 명칭으로 '배달특급'을 선정했으며 오는 11월 초 시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상찬기자



# 복지사각지대 발굴 가두캠페인 실시

지난 10월 6일 청평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20년 다섯 번째 정기회의와 2020년 5차 맞춤형복지 홍보 및 복지사각지대발굴을 위한 가두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정기회의는 청평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 4기가 출범하는 날로 11명의 위원들로 구성됐고 위원장은 3기에 이어 4기에도 양성남면민위원장이 맡게 됐다.

정기회의에서는 복지사각지대 긴급구호비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 심의 1건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 심의 3건이 있었으며 8-9월 활동 결과보고 및 10-11월 활동 안내를 했다.

또한 회의 후 지사협위원 모두 청평역사를 방문해 청평면민에게 맞춤형 복지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홍보의 시간을 가졌다. 양성남 민간공동위원장은 "4기 지사협위원장으로써 지난 기수의 경험을 살려 4기 활동기간에는 더 많은 지사협 특화사업을 통해 청평면민이 혜택을 받고 더 살기 좋은 청평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며 이번 기수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기간 청평면장은 "3기 청평면지사에 이어 4기에도 활동해주셔서 감사드리고 4기에 새롭게 활동해 주실 조충현위원님도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4기에 민간위원장으로선 출퇴근 양성남 위원장님께서 2년 동안 청평면지사를 위해 지금까지 애써주시길 바랍니다"며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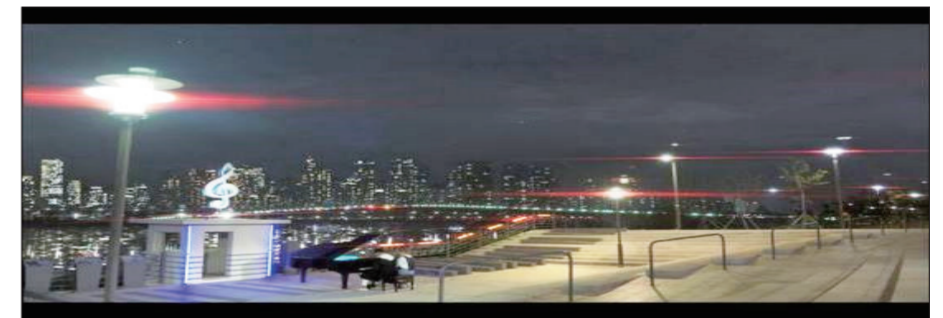
김영근기자



# '청춘기록'박보검·박소담 피아노 데이트 촬영지 '배곧한울공원' 화제

시흥시 배곧한울공원이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tvN 드라마 '청춘기록' 촬영지로 주목받고 있다. 9월 22일과 28일 방영된 청춘기록 6화~7화에서는 박보검과 박소담 커플이 배곧한울공원을 배경으로 데이트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특히 박보검과 박소담이 함께 피아노를 연주하는 데이트 장면은 음악가인 배도벤을 주제로 조성한 배곧한울공원 배도벤이인 조소를 배경으로 촬영돼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드론으로 촬영된 공원을 따라 흐르는 서해바다의 야경과 해변이 다리의 아름다운 조명이 드라마의 분위기를 한껏 아름답게 만들었다. 배곧한울공원은 시흥시 정왕동 일원의 33만6248㎡ 규모

최정부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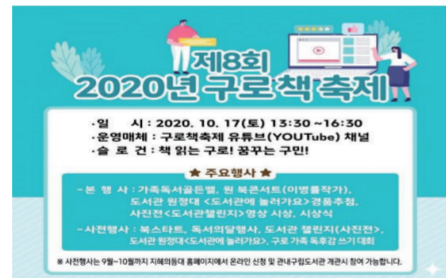
# 오프라인에선 거리두기 온라인에선 Book적 Book적

구로구가 '책 축제'를 개최한다. 구로구는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주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책 축제'를 마련한다"고 6일 밝혔다.

8회째를 맞이한 '책 축제'는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2013년 구로구가 시작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축제로 진행한다. 책을 통해 꿈과 희망을 펼쳐 나가길 바라는 의미에서 '책 읽는 구로 꿈꾸는 구민'을 슬로건으로 정했다. 축제는 17일 오후 1시 30분 온라인 '북 콘서트'로 시작한다. 산문집 '혼자가 혼자에게'의 저자 이병률 작가가 책 읽는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한다. 강연은 유튜브 '구로 책 축제' 채널을 통해 송출된다. 오후 2시에는 개막식이 열린다. 이선 구청장의 개회선언과 축하인사 영상이 방송된다. 이어 독서퀴즈대회 '가족 독서 골든벨'이 진행된다.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한 팀을 이뤄 5권의 선정도서를 읽고 관련 문제를 서바이벌 형식으로 풀어나간다. 총 40팀이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하며 참가자 외에도 누구나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6팀에는 메달과 도서상품권이 지급된다. 본 축제에 앞서 다양한 사전행사도 진행됐다. 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도서관 원정대'를 10일까지 운영한다. 관내 구립도서관 15개소 중 3곳 이상을 방문해 비대면 스마트 인증과 미션을 수행하면 된다. 구로구민 또는 구로구통합도서관 '지혜의 등대' 회원이면 누구나 '구로구 스마트 관광지도' 사이트

를 이용해 참여할 수 있다. 미션을 완료한 참여자에게는 경품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제공한다. 가족 2인 이상이 같은 책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해 제출하는 '가족 독후감대회'도 열렸다. 8월 26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접수된 작품을 심사해 축제 당일 시상한다. 수상작은 구로문인협회의 평가와 온라인 투표 결과를 합산해 결정한다. 9월 한 달간 '책 읽는 사진 공모전'도 실시됐다. 일상 속 책 읽는 모습이나 도서관 응원 문구를 담은 사진이 대상. 8일까지 계속되는 지혜의 등대 홈페이지 댓글 투표를 통해 우수작품 10점을 선정한다. 축제는 폐막식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가족 독서 골든벨, 가족 독후감대회, 책 읽는 사진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과 도서관 원정대 참여자 경품 추첨이 열린다. 행사 당일 유튜브를 통해 책 축제를 관람한 주민을 대상으로 100명을 뽑아 경품도 지급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책의 다양한 매력을 선사하기 위해 이번 '책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이 어려운 요즘, 책을 통해 더욱 풍성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미성기자



# 화성시, "고사리손으로 만든 허수아비로 생태학습장 지켜요"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고 7일 화성시 동탄북합문화센터 생태학습장은 한가운데 어린이들이 직접 만든 허수아비가 세워졌다.

화성시가 관내 34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논 산책 프로그램'이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아이들이 직접 논을 방문하는 대신 허수아비를 만들어 보낸 것이다.

시립반송어린이집과 시립하랑어린이집의 장애인통합반을 포함 어린이 총 60명이 고사리 손으로 꾸민 허수아비는 아이들의 작아진 옷을 입고 커다란 단추 눈을 달아 귀여운 모양새이다.

특히 '참새야, 조금만 먹어'라는 팻말을 들고 있어 아이들의 선한 마음

도 엿보인다.

허수아비는 매송면 야목리 친환경 논과 동탄북합문화센터에 각 2개씩, 총 4개가 설치됐으며 추수 때까지 비 이삭을 지키게 된다. 김조항 농식품유통과장은 "아이들이 직접 논에 오진 못해 아쉽지만,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올바른 식생활과 농경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논 산책 프로그램은 어린이집에서 비 허분 만들기, 논에서 서식하는 생물 관찰, 논 속에 사는 친구 그림 그리기, 농부아저씨와의 인터뷰 동영상 관람 등으로 구성됐으며 연말까지 추수체험과 UCC영상 및 책자 제작, 사례공모전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남주기자

# STICKER

네임스티커 & 각종 홍보판촉 스티커

전제품이 특수 방수 코팅 되어있어 컵이나 식기류에 붙여도 번지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린이용품은 물론 각종 생활용품, 홍보물에도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 TOPPER

기쁜날 감동을 두배로 케이크토퍼

기념일 축하, 여행 감성사진, 기업홍보, 이벤트에 빠질 수 없는 케이크토퍼 토퍼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명예문화관광축제 2020 온라인 문경찻사발축제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원 달항아리, 소원 접시 릴레이

2020 온라인 문경찻사발축제 준비가 한창이다. 지난 5일 문경찻사발축제 추진위원회는 도청을 방문해 명예문화관광축제 선정을 기념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온라인 참여프로그램인 소원달항아리, 소원접시 릴레이 이벤트를 가졌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한 고유현 경상북도의회 의장, 경상북도의회 의원 등이 참여해 2020 온라인 문경찻사발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길 기원했다. 이번 행사는 도청 현관 로비에 서 목심 이학천 도예명장의 소원달항아리에 말그림 그리기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코로나19 안전을 위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고유현 경상북도

의회 의장이 경상북도 대표로 소원을 작성했다. 향후 소원달항아리 퍼포먼스는 시청, 시의회에서 추가로 작성해 총 4개를 제작·전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프로그램에 사용된 달항아리는 높이 68cm, 폭 64cm의 대작으로 문경 도자기의 기술과 아름다움을 잘 표현했다고 평가받는다. 이 작품들은 전통가마에서 구워져 온라인 전시 콘텐츠 '내 손안에 전시관'에서 관람 가능하다. 2020 온라인 문경찻사발축제는 랜선 타고 ON 문경찻사발이야기란 주제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www.sabal21.com에서 즐길 수 있다.

이원형기자



## 함안화천농악과 함께하는 함안생생마실 3차 축제

함안군의 대표적 전통문화행사인 함안생생문화제 '함안화천농악과 함께하는 함안생생마실' 3차 축제가 오는 10월 9일 오후 4시 함안박물관 야외 마당에서 개최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신청자 50명만 초청되어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서는 함안화천농악의 전승·협력 단체인 풍물패 청음의 '아라가야 고취대' 공연을 시작으로 한지공예, 자서퍼즐을 이용한 아라가야 유물만들기, 투호, 윷놀이, 버나돌리기, 죽방울놀이 등 다양한 전통놀이 및 전통연희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경품 획득을 위한 퀴즈와 전통놀이 미션 수행 등의 참여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행사 말미에는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13호 '함안화천농악' 공연이 펼쳐져 이날 행사에 신명을 더하게 된다.

이번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신청은 '함안생생문화제' 네이버블로그 또는 밴드에서 접할 수 있으며 함안화천농악보존회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함안군과 주관단체인 함안화천농악보존회, 전승·협력단체 풍물패청음은 2018년 "함안화천농악과 함께 가야문화 마실가자"와 2019년 "함안화천농악과 함께하는 함안생생마실" 사업이 지역문화재 활용 우수사업으로 선정돼 2년 연속 문화재청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생생문화제 사업'은 문화재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개발해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이다.

정문호기자

# '2020온라인경북영주풍기인삼축제' 10월 9일 개막 제18회 안동관광 전국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

## 10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풍기인삼축제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참여 이벤트 진행

영주시는 오는 10월 9일 '2020온라인경북영주풍기인삼축제' 개막식을 개최한다. 이번 '2020온라인경북영주풍기인삼축제' 개막식은 10월 9일 오전 10시 축제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백산 인삼씨앗뿌리기 퍼포먼스'영상을 송출한 후 개막이 선포될 계획이다. 개막식 후에는 영주의 대표적인 지역문화예술공연인 '뎃뎃미 화전놀이'와 유명 방송인 장소희와 맹승지가 출연하는 '장소희, 맹승지의 극한 알바' 프로그램을 차례로 방영해 축제를 진행될 예정이다. '2020온라인경북영주풍기인삼축제'는 10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열흘간 개최되며 풍기인삼축제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참여이벤트 등이 진행된다. 장육현 영주시장은 "올해는 영주의 대표적인 축제인 풍기인삼축제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풍기인삼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 풍기인삼을 널리 알릴 것"이라며 "이번 온라인 축제에 많은 분들이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원형기자



## 522점 접수 81점 최우수작, 수려한 관광지 담은 20점 엄선했다

'제18회 안동관광 전국사진 공모전' 수상 작품이 시청 운부관 현관에서 이달 8일까지, 이후 시의회 로비에서 16일까지 전시된다. 안동시가 주최하고 한국사진작가협회 안동시부에서 주관한 제18회 안동관광 전국사진 공모전은 안동 지역의 특성과 자연적, 문화적 특색을 담고 있는 우수한 관광사진을 선발해 안동문화관광의 홍보자원으로 관광계 유지에 활용하고자 열렸다. 이번 공모전에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간 522점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81점이 최종 선정됐다. 이 중 민족독립의 얼을 담고 있는 임정각 등 안동의 수려한 관광지 20점을 엄선했다 전시한다. 공모전 수상작은 안동을 홍보하는 관광홍보물이나 관광 상품 제작 등에 활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야외활동이 조심스러운 상황에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간접적으로나마 안동 관광지의 아름다움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온라인 전시를 통해서도 작품 감상이 가능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김영호기자

## 안동시,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집중홍보

### 포장·배달 확산, 재활용품 분리배출 이렇게 실천하세요~

안동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생활폐기물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어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을 제작해 홈페이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한다. 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감시원 8명이 분리배출 취약지역을 찾아 홍보 전단지 등을 배부하며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에서 안내하고 있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에 따르면 플라스틱 용기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배출해야 하며 택배 박스 등은 송장과 테이프 등 부착물을 제거하고 배출해야 재활용이 용이하다. 특히 깨진 유리병은 재활용이 되지 않음에도 재활용품과 함께 배출되는 사례가 많은데, 신문지로 싸서 타지 않는 쓰레기 마대에 배출해야 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포장·배달 문화가 확산되며 재활용품 쓰레기 발생이 급증해 시민 개인의 자발적인 분리배출이 시급하다"며 소중한 자원을 재활용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호기자



## 울릉군 태풍 "마이삭, 하이선" 피해 복구비 확정

### 울릉군 피해 복구비 확정으로 기반시설 정상화 발걸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9월 3일 울릉도에 상륙했던 제9호 태풍 '마이삭', 뒤이어 9월 7일 울릉도에 제10호 태풍 '하이선'에 대한 피해 복구비 813억원을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29일 확정했다. 이번 두 개의 태풍은 해수면이 올라가는 대기압과 겹친 시기와 사상 유례없는 높은 파도가 연속적으로 울릉도에 영향을 줬으며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에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

다.이에 따라 울릉군은 9월 10일 특별재난지역 우선선포 건의를 했으며 대통령은 울릉지역을 9월 15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 한바 있다. 이어 정부는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을 위해 지자체의 자체 피해조사 종료 이전에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실시하고 9.29일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두 태풍의 종료일로부터 복구계획 수립, 확정까지 걸린 기간은 23일로 평소의 복구계획 수립 소요기간 58일에 비해 크게 단축했다. 울릉군의 피해 복구액은 울릉도 349억원, 남양항 136억원, 울릉도주도로 167억원, 한전물량장 42

억원, 독도주민소속 및 물량장 14억원 등 42건에 총 813억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앞으로 태풍피해 복구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지난달 울릉일주도로 등의 긴급복구를 완료한 상태이나, 태풍 및 코로나 19의 여파로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는 중이다"고 밝히면서 "지금부터는 향후 자연재난으로부터 복구계획 대비 할 수 있는 항구 복구가 신속히 추진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 해 주민여러분이 평온한 일상을 하듯 빨리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원형기자

## 영천시, 강변체육시설 유료화

영천시는 강변에 조성된 단포축구장, 조교파크골프장에 대해 동호인들의 시설 이용 증가에 따른 합리적인 운영방안으로 시설 유료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우선, 단포축구장과 조교파크골프장이 유료화 된다. 요금은 인조구장 기준으로 낮에는 평일 5만원, 공휴일 8만원이며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큼 이용료가 가산된다. 단포축구장과 조교파크골프장은 개정 조례안 공포와 동시에 유료화 운영에 들어가며 영천시청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새마을체육과에서 수기로 신청 가능하다. 통합예약시스템은 계좌이체, 새마을체육과는 카드결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이용료 납부 가능하다. 한편 현재 27홀에서 36홀로 확장공사 중인 조교파크골프장은 연회비 비로 기본 5만원, 경로대상자는 3만



원, 국가 유공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2만 5천원을 내고 이용 가능하며 비회원일 경우 영천시민은 2천원, 외지인은 5천원을 내면 당일 3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조교파크골프장은 현재 확장공사로 내년 초 개장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시설 내 매표소를 설치해 시 직영으로 운영할 계

획이라고 전했다. 최기문 시장은 "시민 누구나 공정하고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민에게 보다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반식기자







# 팔복예술공장, 예술교육 거점공간으로 '착착'

시, 총사업비 10억원 투입해 팔복예술공장 실내·외 공간에 예술교육 체험공간 조성 중

방치된 폐산업시설을 재생해 만들어진 전주 팔복예술공장이 예술교육 거점공간으로 변신한다.

전주시는 올 연말까지 국비 5억원을 포함해 총 10억원을 투입해 팔복예술공장 실내·외 공간에 유튜브 스튜디오 등 예술교육 체험공간을 조성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팔복예술공장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예술놀이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이 사업은 야외공간 1075㎡에는 야외예술터를 조성하고 100㎡ 규모의 실내공간에는 멀티미디어 예술교육실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실내공간의 멀티미디어 예술교육실의 경우 1인 미디어 시대 트렌드에 맞춰 영상 촬영부터 송출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장비를 구축해 '유튜브 스튜디오'로 꾸밀 계획이라고 전했다. 야외예술터에는 물 예술터, 흙, 모래 예술터, 창작예술터

로 구성돼 예술놀이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

어린이와 청소년 등 방문객들은 흙, 모래, 물을 활용해 창의적인 조형물을 만드는 체험을 하며 모험심과 균형 감각 등을 익힐 수 있다.

다양한 예술적 조형물을 통해 창의적인 감각도 키울 수 있다.

시는 예술교육 체험공간이 조성되면 시민과 관광객들이 예술놀이를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미래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감성과 표현력, 상상력을 높이기 위해 주는 예술교육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선포식을 갖고 예술교육 인적자원 발굴 전주형 예술교육 추진 예술교육 공간 조성 및 운영체계 구축 등에 힘쓰고 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팔복예술공장 내 일반 방문객이 예술놀이를 경험할 수 있는 상설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야외 예술터와 유튜브 스튜디오가 구축되

면 일반 방문객에게도 다양한 체험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팔복예술공장은 지난해 11월 문화체육관광부 꿈꾸는예술터 사업으로 '팔복야호예술놀이터'가 조성됐다. 지난해에만 6만명이 넘는 시민과 관광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송일기자



# 장수군,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라북도 기관표창 수상

장수군이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이 주관하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7일 장수군에 따르면 통합건강증진사업은 해당 지역의 건강현황을 분석 후 문제점 등을 파악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운동과 금연, 심뇌혈관질환, 구강 등 건강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으로 주민 건강 증진 사업이다. 장수군은 걷기실천율,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혈당인지를 등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돼 맞춤형 집중 사업을 추진했다.

군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아짱 잇몸짱 만들기를 비롯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삼삼오오 건강걷기, 농업인대학 통합건강교실, 취약지역 마을회관 건강교실 등 어린이, 성인, 노인층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해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캐릭터로 캠페인을 전개해 홍보 효과와 참여도를 높였다.



윤옥경 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자체 동영상 제작을 통한 비대면 사업 등을 꾸려 주민들에게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각 가정에서 여가 시간에 마스크 착용 후 야외 걷기 실천 등 자발적인 건강 챙기기에 노력 해줄 것"을 당부했다.

곽승오기자

# 완주군의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촉구 건의

전북 완주군의회는 10월 6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에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정부에 전달하기로 뜻을 모았다.

20년 8월 5일부터 시행중인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3차례의 특별조치법과는 달리 보증인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했으며 보증인 중 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을 의무적으로 포함했다.

특히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 보증인의 보수가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지 않고 450만원 이내에

서 협의하도록 되어있어, 신청인에 대한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가중됐다.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정 전인 2006년 이전의 특별조치법은 종중이나 마을 토지가 개인소유로 되어 실제 소유자와 등기상의 소유자가 불일치 할 경우, 실제 소유자인 종중명이나 마을 명의로 등기신청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에는 관련 조항이 없어 해당 부분에 대한 개정을 촉구했다. 건의 내용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변호사·법무사의 자격 보증인 제도를

삭제하고 과거 3차례 시행했던 특별조치법과 같이 '음·면장이 당해 부동산 소재지에 일정기간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서면 신청'하도록 개정하고 농지의 경우,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 소유 제한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도록 부칙에 신설해 실제 소유자인 종중명이나 마을명의로 등기이전을 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종철기자



# 부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코로나 블루 극복 캠페인 전개



부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달 28~29일 지난 5일 등 3일에 걸쳐 부안터미널 일원에서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코로나 블루 극복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청소년과 부안군민을 대상으로 현수막 및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코로나 블루 극복 방법을 홍보했다.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은

올해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청소년 안전망 선도 사업'과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공모에 부안군이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위기상황의 청소년을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에서는 청소년안전망선도사업으로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 및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해 허브 역할을 하고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는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개별 또는 집단 형태의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게 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위기상황의 청소년들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소년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송일기자



# 동대구 더센트로 데시앙

